

# 순천팔마중 종별배구선수권 우승 '창단 첫 2관왕'

남중부 결승 문일중 2-1 제압  
김민제 MVP·김우찬 세트상  
목포여상·순천대석초 준우승  
순천제일고 3위 전남배구 쾌거

순천팔마중학교가 7일 제78회 전국중별 배구선수권대회 남중부 우승을 차지했다. 2023 춘계 전국 중교배구연맹전 우승팀 순천팔마중은 이번 대회 우승으로 지난 2002년 팀 창단 후 처음으로 전국대회 2관왕을 달성했다. 종별배구선수권대회 우승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외에 목포여상이 여고부 준우승, 순천대석초가 남초부 준우승, 순천제일고가 남고부 3위에 오르는 등 전남배구는 종별배구 선수권대회 4개 부문 입상을 기록했다.

순천팔마중은 이날 충북 제천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남중부 결승에서 문일중을 2-1(15-25 25-13 15-11)로 꺾고 우승기를 품

에 안았다. 춘계연맹전에서 주전 세터 김우찬(3년)이 부상으로 뛰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우승을 차지했던 순천팔마중은 이번 대회에 김우찬이 복귀하면서 대회를 치렀고 창단 첫 2관왕이라는 금지탑도 쌓았다.

순천팔마중은 함안중, 대연중, 문일중과 D조에 포함돼 일정을 시작했다.

대연중을 2-1(25-22 21-25 15-5), 함안중을 2-0(25-13 25-13), 문일중을 2-1(10-25 25-19 15-13)로 이겨 3승으로 예선을 통과했고 8강에서 제천중을 2-1(20-25 25-18 15-7), 준결승에서 금호중을 2-0(25-18 25-19)으로 제압하고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 상대는 춘계연맹전에서 우승을 다했던 문일중. 당시 예선에서 지고 결승에서 이겼던 순천팔마중은 이번 대회에서는 예선에서도 승리했고 다시 만난 결승에서도 세트스코어 2-1로 승리하면서 정상의 실력을 과시했다.

최우수선수상은 김민제(3년·레프트), 세터상은 김우찬이 받았다. 박정환 감독은

지도자상을 수상했다. 순천팔마중은 이달 말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육대회를 앞두고 우승을 차지하면서 좋은 기운을 안고 울산으로 향할 수 있게 됐다.

춘계연맹전에서 2년 만에 전국대회 우승을 차지했던 순천팔마중은 2개 대회 연속 정상에 올라 소년체전 입상도 기대해볼 수 있게 됐다.

김진범 코치는 "춘계대회 때는 문일중에 쫓겼다 결승에서 이겼는데 이번에는 예선에서부터 이기고 올라왔다"면서 "주전 세터인 김우찬이 재활을 마치고 가까스로 이번 대회 일정에 맞춰 복귀하면서 주전과 후보 세터를 골고루 기용하며 대회를 치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대회는 대진운이 좋았다. 물론 선수들도 그동안 훈련을 열심히 하고 대회도 잘 치른 결과"라면서 "소년체전에서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여상은 여고부 결승에서 한복고에 0-3(24-26 22-25 23-25)으로 지면서 준우승, 순천대석초도 남초부 결승에서 서울면



순천팔마중학교가 7일 충북 제천체육관에서 열린 제78회 전국중별배구선수권대회 남중부 결승에서 문일중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순천팔마중 제공

목초에 0-2(11-25 16-25)로 패해 준우승을 했다.

순천제일고는 남고부 준결승에서 수성고와 접전 끝에 2-3(33-31 26-28 25-21 23-25 11-15)으로 아쉽게 패해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최고의 역사를 자랑하는 전국중별배구선수권대회는 광복 이듬해인 1946년에

처음 열렸으며,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을 제외하고 매년 개최됐다. 제78회 전국중별배구선수권대회는 13세 이하 33개 팀, 16세 이하 30개 팀, 19세 이하 28개 팀, 남자 일반부 4개 팀, 생활체육유소년부 8개 팀 등 총 103개 팀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다. /최진화 기자

## 광주도시공사 챔프전 진출 내년 기약

부산시설공단에 22-28 패  
주전 부상 공백 2위 마무리

광주도시공사가 2022-2023시즌 SK핸드볼 코리아리그 챔피온결정전 진출에 실패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3일 서울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여자부 플레이오프 부산시설공단과의 경기에서 22-28로 졌다. 강경민이 6득점 3어시스트(공격포인트 9개)를 올렸고 박조은이 14세이브(방어율 35.9%)를 기록하며 활약했으나 집중력에서 승부가 갈렸다.

이날 패배로 광주도시공사는 챔피온의 꿈이 어렵게 좌절됐지만 3년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이라는 성과를 얻었다. 시즌 최종 성적은 정규리그 2위(13승 5무 3패·승점 31)로 마쳤다.

지난 시즌 역시 정규리그 2위(13승 8패·승점 26)를 기록한 광주도시공사는 올 시즌 주전 선수들의 부상 공백에도 불구하고 구단 사상 역대 최고 승점(31)을 기록했다.

광주도시공사는 2022-2023시즌 개막 당시 SK 슈가글라이더즈와 함께 우승 후보 중 하나로 꼽혔다. 올 시즌을 앞두고 신인 김수민, 나지현의 영입으로 전력을 보강했고 에이스 강경민을 필두로 서아루, 돌아온 김금순 등 팀 내 신인과 베테랑의 조직력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광주도시공사는 시즌 초반부터 우세한 전력으로 압도적인 선두를 내달렸다. 리그 첫 경기였던 지난 1월 5일 경남개발공사전 28



지난 3일 서울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2022-2023시즌 SK핸드볼 코리아리그 여자부 부산시설공단과의 플레이오프를 마친 광주도시공사 선수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5 승리 이후 11경기 연속 무패행진(9승 2무)을 이어가는 등 2라운드 중반까지 최정상을 유지했다. 특히 지난 2월 5일 홈에서 열린 경남개발공사와의 경기에서 구단 역사상 첫 5연승을 달성, 팀 최다 연승과 최다 무패 기록을 세웠다.

우승 후보다운 파괴력을 선보인 광주도시공사는 우승 트로피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으나 11경기를 남겨놓고 준부상 약재에 마주했다. 시즌 도중 무릎부상 서아루와 원선필, 그리고 팔꿈치 인대 손상을 당한 송혜수 등 핵심 선수들이 이탈했다.

핵심 선수들의 줄부상으로 인해 선두 경쟁에 적신호가 켜졌던 광주도시공사는 결국 1위를 내줬다.

그러나 지난달 9일 청주 부산시설공단전에서 5경기 만에 승전고를 울리며 2위로 복귀하는 등 '우승 후보'다운 저력을 보여줬다. 얇은 선수층에 부상 선수까지 겹치면서

골머리를 앓았던 광주도시공사지만 매 경기 선수 전원이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투혼을 발휘한 결과였다.

오세일 광주도시공사 감독은 "올해는 플레이오프 진출을 두고 시즌을 준비했는데 시즌 초반 무패행진을 해서 우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며 "이후 부상 변수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선수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해줘서 2위를 할 수 있었다. 선수들 모두에게 고맙게 생각한다"고 돌아봤다.

광주도시공사는 올해 12월을 끝으로 강경민, 서아루, 원선필 등 주축 선수들의 계약이 만료된다. 오 감독은 "세 선수를 모두 잔류를 시키는 게 급선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선수층이 얇다. 부상 대체 선수가 없다 보니 힘든 경기를 했다. 광주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다음 시즌에는 선수층을 넓히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혜원 기자

## 광주시청 장애인사격팀 박승우 태극마크

직지배 사격대회 금 4·은 2

광주시청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사격팀 박승우(29)가 항저우 장애인아시아게임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박승우는 지난 5일 청주종합사격장에서 끝난 2023년 장애인사격 국가대표 선발전 겸 제5회 직지배 전국장애인사격대회에서 단체전 3관왕(R5, R9, R11), 개인전(R5) 1위로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개인 R9, 단체 R4) 총 6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박승우는 지난 3월 2023 회장기 전국사격대회 단체전 3관왕, 4월 제16회 대통령 경호처장기 전국사격대회 개인전 2관왕·단체전 금메달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기록을 얻었다. 그는 R4(혼성 공기총 입사), R5(혼성 공기총 복사), R9(혼성 화약 총 복사)에서 '국가대표 선발전 3개 대회 합산 전체 1위'로 10월 22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항저우 장애인아시아게임 국가대표 자격을 얻었다.

박승우는 지난해 10월 2022 아아인 장애인사격 세계선수권대회 단체전 은메달리스트로 항저우아시아게임 다관왕을 노리고



광주시청 박승우(오른쪽)와 총알을 장전해 주는 로더 류영희씨. /최진화 기자

있다. 박승우는 "2020년 생애 첫 국가대표에 발탁된 이후 아시안게임은 처음이어서 의욕이 크다"며 "9월에 열리는 페루리마 세계장애인사격선수권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그 기세를 이어 10월에 열리는 아시안게임에서 금빛 총성이 대한민국에 울릴 수 있도록 훈련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진화 기자

## 광주FC, '승격 동기' 대전과 0-0 무승부



광주FC가 대전 하나 시티즌과의 올시즌 첫 맞대결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광주는 지난 6일 광주 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3 11라운드 대전과의 경기에서 0-0으로 비겼다.

이날 광주는 볼 점유율 59%를 바탕으로 대전을 압박했다. 슈팅도 10-5로 앞섰고 유효슈팅도 4개를 기록했으나 골문이 따르지 않았다.

광주는 전반 12분 상대 골키퍼의 선방에 막힌 주영재의 중거리 슈팅을 이견희가 다시 밀어 넣었으나 상대 안톤의 태클에 걸렸다. 1분 뒤에는 아론의 코너킥을 연결지은 이강현이 슈팅을 날렸으나 골대를 빗나갔다.

전반 27분에는 김경민의 2단세이브가 빛났다. 김경민은 전병관의 오른쪽 슈팅을 막아내면서 넘어졌고 곧바로 상대 유강현의 후속 슈팅까지 품어 안았다.

4분 뒤에는 측면을 돌파한 김한길의 패스를 받은 하승운이 오른쪽 중거리 슈팅을 때렸으나 상대 수비를 맞고 골대 옆으로 흘렸다. /조혜원 기자

전반 39분 하승운의 돌파에 의한 슈팅이 이창근 선방에 막혔다. 정호연은 흘러나온 볼을 바로 때렸으나 옆구리를 강타했다. 전반 45분 이강현의 패스를 받은 이견희의 터닝 슈팅은 높았다.

후반 시작과 함께 광주는 허을, 엄지성, 이희균을 동시에 투입하며 승부수를 띄웠다. 이후 후반전은 광주의 흐름이었다. 후반 2분 김한길의 크로스를 받은 허을이 헤더로 연결했으나 골문을 살짝 빗나갔다. 후반 18분 아사시가 돌파하면서 슈팅을 날렸으나 이창근 손에 걸렸다.

광주는 후반 30분 이순민과 산드로를 투입하며 마지막 승부를 걸었다. 측면에서 아사니와 엄지성, 허을이 쉴 새 없이 대전을 공격했지만, 모두 한 골 차이로 대전을 열지 못했다.

경기 후 이정호 감독은 "선수들 모두 꾸준히 잘하고 있지만 오늘 좀처럼 득점이 나오지 않았다. 선수들 본인이 더 아쉬울 것"이라며 "볼을 넣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지금처럼만 하다 보면 많은 골이 나올 거라 생각한다. 늦은 날씨가 있으면 밝은 날씨도 있다. 우리가 구름 위로 올라가 햇빛을 볼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고 총평했다. /조혜원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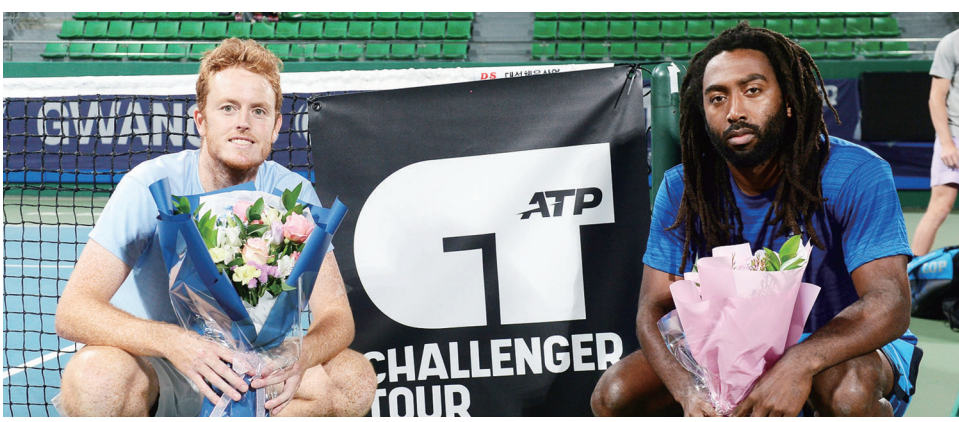
## 에반 킹-리즈 슈탈더

광주오픈 테니스 복식 우승

에반 킹-리즈 슈탈더 조가 2023 광주오픈 복식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에반 킹(미국·복식 세계 랭킹 138위)-리즈 슈탈더(미국·110위) 조는 지난 6일 광주 진월국제테니스장에서 열린 2023 광주오픈 국제남자챌린저테니스대회 복식 결승전에서 앤드류 해리스(호주·117위)-존 패트릭 스미스(호주·102위) 조를 2-0(6-4, 6-2)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킹과 슈탈더는 시상식 후 "이틀 동안 비가 오면서 경기력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결승 경기도 어렵게 풀어나갔었다"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플레이를 하기 위해 노력했고, 광주에 올 때까지



에반 킹(오른쪽)과 리즈 슈탈더가 지난 6일 광주 진월국제테니스장에서 열린 2023 광주오픈 국제남자챌린저테니스대회 복식 결승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뒤 트로피와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테니스협회 제공

고 온 우승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서울오픈에서 성적이 좋지 않았지만 광주오픈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어 대

단히 만족스럽다"며 "대회 관계자들과 볼퍼슨, 통영, 마케터들의 원활한 일처리와 철저한 준비에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최진화 기자